

트렌드 & 스타일

개성과 멋쟁이 "맞춤옷이 좋다"

요즘엔 남성들도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갖는 추세다. 서울 지역의 경우 멋쟁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맞춤 의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상태. 광주 지역은 아직 일반화 되지는 않았지만 20~40대 남성들 사이에서 맞춤옷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소재·디자인 직접 골라 맘시 살고 체형 보정도

맞춤 의상의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또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의상을 입기 때문에 체형 보정 등에도 도움이 된다. 그밖에 박음질 등 기본 바느질도 기성복에 비해 훨씬 꼼꼼해 옷맵시가 더 살아난다는 장점도 있다.

광주대 의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남성복 맞춤점 '지골로'를 운영중인 한석기(29)씨는 "가게를 찾는 고객의 70% 정도가 매장에 걸린 디자인의 옷을 구입하지만 30% 정도는 패션지나 TV 드라마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직접 가져와 함께 디자인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 씨의 도움말로 올 겨울과 봄 남성복 유행 아이템을 알아봤다.



올 봄 인기 예감 와이셔츠.



남성복 맞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석기 씨가 올 유행 아이템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복고기 대체

올해는 복고 스타일이 유행이다. 한 씨 역시 영화 '카사노바' 등 시대극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옷을 디자인 하곤 한다. 남성들의 필수품인 자켓의 경우 정장 스타일 보다는 허리가 많이 들어가고 슬림한 스타일이 인기다.

코트는 웨스턴 스타일이 가미된 디자인이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지는 지난 여름 이후 유행했던 스קי니 대신 신발을 덮는 부츠컷이 인기다. 올 겨울에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보이는 벨벳 자켓. 또 흔히 사별원단이라고 불리는 홈스펀의 경우 검은색과 회색 등 무채색에서 벗어나 분홍, 빨강 등 밝은 색상들이 가미되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가볍고 따뜻한 알파카 역시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되고 있다.

■남성복도 화사하게

남성들의 필수품인 와이셔츠의 경우 화려함이 대세다. 여성복의 전매 특허로 생각되는 프린트와 주름 장식은 사계절 내내 각광받는 아이템이며 핑크 등 화사한 색상을 찾는 고객도 많다.

올 봄에는 한때 인기를 모았던 스트라이프 보다는 핑크 등 단색의 슬리드 와이셔츠가 히트 예정이다. 특히 새틴이나 실크 같은 광택나는 원단을 활용해 하늘하늘한 분위기를 내는 멋쟁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색상이 붉은색 등 화려한 원색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올 봄에는 자켓의 경우 반짝거리는 은사나 금사를 활용해 다소 화려하면서도 밝은 스타일을 연출하면 좋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성패션 더 짧게... 반짝반짝... 을 봄 더 눈부시다



스키니진, 레깅스, 미니스커트, 미니멀리즘...

작년 한 해 유행했던 패션 경향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들이다. 올해에는 패션계에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지난해 국내외에서 개최된 '2007 봄·여름 컬렉션'에서 나타난 경향을 토대로 올 상반기 주목해야 할 여성 패션 키워드를 살펴본다.

■반짝반짝...메탈릭 룩

금빛 혹은 은빛의 메탈릭한 트랜치 코트, 스웨터나 시퀀(sequin, 반짝이는 금속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미니 원피스, 은사를 섞어 짤 스웨터...

올해 유행을 선도하는 멋쟁이가 되려면 의상이든 액세서리든 반짝거리는 아이템을 한 두개쯤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파리, 밀라노 등에서 열린 '2007 봄 여름 시즌 컬렉션'에서 나타난 뚜렷한 경향 중 하나가 차가운 광택의 금속 이미지로 대표되는 퓨처리즘(futurism : 미래주의)이다. 의상에 포인트를 주는 가방이나 구두, 액세서리 등은 물론, 옷에서도 에나멜, 새틴, 금속성 소재 등을 사용한 반짝거리는 아이템이 무대를 누렸다. 심지어 비닐, PVC, 플라스틱, 유리 등 상상하기 힘든 소재가 옷의 재료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겨울 시즌 골드가 블랙 룩에 포인트를 주는 요소로 떠오른 데 이어 상반기에는 퓨처리즘의 영향으로 실버가 주목받으면서 금속성 소재와 컬러의 사용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즘

후드 점퍼, 지퍼 여밈의 재킷, 팔막한 보머 재킷(bomber jacket), 하이힐에 스니커즈를 접목시킨 하이힐 스니커즈...

경쾌한 스포티즘의 부활도 '2007년도 봄 여름 컬렉션'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

뉴욕과 런던 컬렉션에서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80년대 스타일을 스포티한 감각으로 풀어냈으며, 밀라노에서도 퓨처리즘과 스포티즘이 접목된 의상들이 선보여졌다.

국내 기성복 브랜드도 스포티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성복 브랜드 구호의 경우 작년말 열린 '2007 봄 여름 컬렉션'에서 후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한 스포티한 의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미니, 쇼츠

미니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 지난해 불었던 미니 열풍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올 겨울 유행했던 짧은 팬츠 역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아이템으로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귀여운 느낌을 자아내는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베이비돌 원피스, 발랄한 이미지의 튜블립 형태의 볼풀감 있는 원피스 등 다양한 스타일의 미니 원피스가 주요 컬렉션에서 대거 등장했다. 또 경쾌하고 발랄한 스포티즘의 영향을 받은 아주 짧은 쇼트 팬츠도 무대를 장식했다.

봄 의상의 필수 아이템인 트랜치 코트 역시 기존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다소 긴 스타일 대신 스커트 길이에 맞춰 한층 짧아졌다.

그밖에 재킷 역시 허리 위로 올라오는 짧은 스타일이 계속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LCE Tower, Daewoo,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